



Analyst 김세련 · 02-3773-8919 · sally.kim@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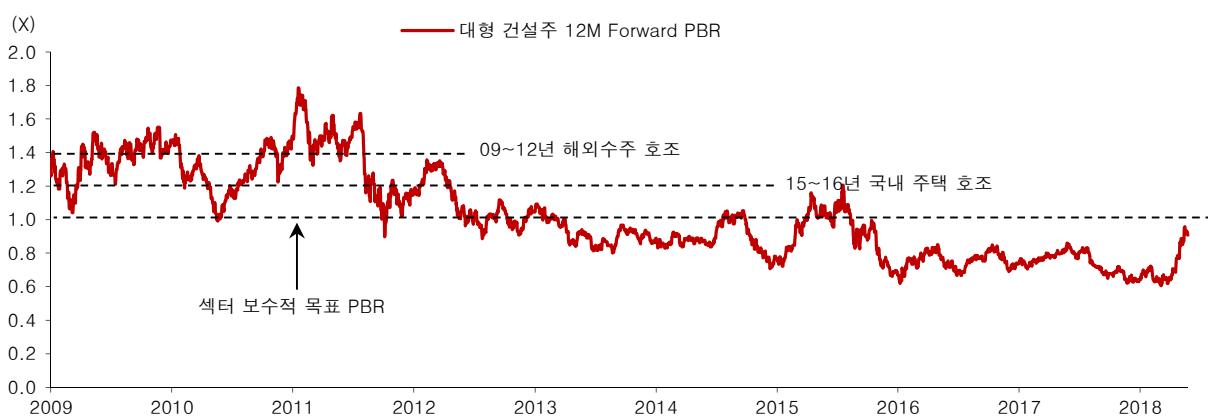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트럼프 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돌연 취소
- ✓ 단기 주가 조정은 불가피, 합리적 섹터 PBR 1.0X로 판단
- ✓ 확정된 경협사업 금액, 주택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한 수준

[건설] 북미정상회담 결렬, 합리적 멀티플을 고민할 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명의로 24 일 (미국 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돌연 취소 의사를 밝힘. 서한 내용에는 '가장 최근의 북한 성명에 나온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에 비춰볼 때, 오래 계획해온 회담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명시.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 대형 건설주 12M Forward PBR 기준 경협 기대감으로 주가가 슈팅한 당시 멀티플은 0.93X 수준으로, 1.0X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단기 직관적 기대가 이끌었던 주가 급상승분은 금번 이슈에 따른 실망감으로 일단 빠르게 조정받을 것.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설 섹터 합리적 멀티플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된 경협 프로젝트 세가지 (경의선, 동해선, 개성공단)의 사업 금액이 30 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1년치 토목 수주에 맞먹는 금액임. 이는 주택 매크로 둔화로 인해 디스카운트 받던 건설 섹터 할인 요소를 제거하는데는 충분한 수준으로 보임. 따라서 모멘텀이 아닌 경협으로 인한 현실적 수혜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섹터 타겟 멀티플은 여전히 1.0X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대형 건설주 12M Forward PBR 추이: 경협 기대감으로 주가 슈팅 당시 PBR 0.93X



자료: FnGuide,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